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년 상반기 뉴스레터

- 학교소식**
- 1 학술/연구/교류
 -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3 수업소개
 - 4 교수동정
 - 5 교수출간
 - 6 석·박사과정
 - 7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 동문소식**
- 8 동창회
 - 9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 10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 동정

2014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1기 모집안내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담당교수 이희연, 이유미
학과조교 김도훈, 박윤미, 박주현, 오관교, 홍은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김신영, 기명성, 허운상 E-Design 흑석동직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학교소식	1 학술/연구/교류	4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19
	3 수업소개	24
	4 교수동정	26
	5 교수출간	29
	6 석·박사과정	31
	7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5
동문소식	8 동창회	39
	9 석·박사과정 동문 동정	45
	10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 동정	47

2014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1기 모집안내

학교 소식

1

학술/연구/교류

환경대학원 행사

발전기금 Wall 제막식 및 GLocal Hall 개관식



환경대학원에서는 2014년 1월 24일 '발전기금 Wall' 제막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그동안 환경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93개 법인, 단체, 동문, 교수를 대상으로 그 뜻을 기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제막행사에는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김안제 명예교수, 양병이 명예교수, 이완영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장단이 참여하였다. 제막행사 후에는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의 '발전기금 Wall 설명 및 기부자 우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환경대학원 2층 P&C룸 벽 전면에 설치된 '발전기금 Wall'은 환경대학원에서 직접 디자인한 것이며, 알루미늄 레일에 명패 플레이트를 끼우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발전기금 Wall' 리스트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기부자들의 명단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같은 날 환경대학원 3층에서는 기존 306호를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단장한 'GLocal Hall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발전기금 Wall' 제막행사 이후 이어서 진행된 개관식 테이프 커팅에는 최막중 원장, 김안제 명예교수, 양병이 명예교수, 이완영 동창회장, 민봉기(환경계획학과 10회), 안계동(환경조경학과 12회, 협동과정조경학 8회), 장영기(환경계획학과 16회, 계획박사 4회), 박양호(환경계획학과 8회) 동창회 부회장, 이유민 학생회장(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이 참여하였다. 테이프 커팅 후에는 'GLocal Hall 설명 및 이용 계획'에 대해 조경진 부원장이 발표하였고, 디자인 및 시공업체(간삼건축, 마운틴디스플레이테크, 오피스산전)에게 'GLocal Hall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앞으로 환경대학원 GLocal Hall은 각종 학술대회, 대규모 강의, 전시회, 동창회 모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환경대학원 동창회 신년교례회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2014년 1월 24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2014년 갑오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동창회 신년하례식은 환경대학원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Wall 제막식'과 'GLocal Hall 개관식'에 이어서 진행되었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새해맞이 신년인사와 이완영 동창회장(환경계획학과 13회)의 신년말씀, 그리고 김이환 동창회 명예회장(환경계획학과 1회)의 간배사로 이어졌다. 이후 준비된 떡국을 먹으며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활기찬 2014년 새해를 다짐하였다. 만찬 중에는 김안제 명예교수의 새해 덕담도 들을 수 있었다. 이 행사에는 동창회 명예회장단, 회장단, 동문, 명예교수,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GLocal Hall에서 진행된 첫 번째 행사로 더욱 뜻 깊었다.



발전기금 감사의 밤

2014년 5월 23일 환경대학원은 '발전기금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대학원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하여 주신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월의 푸름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친교를 위한 칵테일 파티가 열렸다. 계속해서 환경대학원 2층 P&C룸에서 조경진 부원장의 진행으로 발전기금 Wall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어졌다. 조경진 부원장은 후학 양성과 연구력 증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으로 환경대학원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당일 행사에 참석한 발전기금 기부자들은 '환경대학원 교수 일동 2013'의 이름으로 환경대학원 전체 교수들이 술선수범하여 발전기금조성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발전기금 Wall 앞에서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본격적인 발전기금 감사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GLocal Hall에서 최막중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감사의 밤 행사에서는 환경대학원 40주년 영상, 발전기금 소개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서울대 국악과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Career Day 행사

2014년 5월 21일, GLocal Hall에서는 "제1회 환경대학원 Career day"가 약 200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동문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재학생을 위한 취업 관련 컨설팅은 물론 기존에 교류하기 힘들었던 재학생과 졸업생들 간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기관은(가나다순) 간삼건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립생태원, 그린엔텍, 에코프런티어, 안전성평가연구소, 이노블럭, 삼성물산, 삼성SDS,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수원시정연구원, 지역활성화센터,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생산성본부, ALN, CBRE Korea 그리고 Green Ecos까지 총 21개이다.

1부 행사에서는 Career Day 행사 취지와 각 참가기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2부 행사에서는 각 참가기관별로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재학생들이 동문선배들에게 유용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3부 행사는 옥상정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가든파티를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 대다수가 취업에 관해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국제개발 워크숍 개최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shop)



환경대학원은 미래를 향한 대학원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의 지난 50여 년 간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도시 개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개발 워크숍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014년도 대상도시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Central Java)에 위치하는 마겔랑(Magelang) 지역으로, UNDIP(Diponegoro University)의 17명 학생들과 환경대학원 15명 학생들이 두 차례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4월 2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1차 워크숍은 Joerson 교수와 Wiwandari 교수 외 17명의 UNDIP의 학생들의 서울대학교 방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최막중 원장을 비롯한 6명의 교수(김경민, 김세훈, 윤순진, 이석정, 장수은)와 조교(양희진), 16명의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총 41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은 5개의 소그룹(지역분석/주민인식조사/주거계획/교통계획/재해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UNDIP 학생들은 실측을 바탕으로 한 마겔랑 지역의 현장조사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서울대 학생들은 비정형주거지 환경개선사례와 재해 등 회복탄력성 강화방안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두 학교 학생들은 현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한편,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워크숍 기간 중 UNDIP 교수와 학생들은 김세훈 교수 인솔 하에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의 역사와 미래 청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청계천을 방문하였다.

2차 워크숍은 5월 24일부터 7일간의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최막중 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수(김세훈, 윤순진, 이석정 교수)와 15명의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메라피(Merapi)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세 지역 마글랑(Magelang)-스마랑(Semarang)-족자카르타(Yogyakarta)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면서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계획대상지 현장답사와 공동 워크숍, 역사문화답사로 이루어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최막중 원장은 두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함께 작업한 마글랑 지역문제에 대한 결과물은 7월 중순에 인쇄될 예정이다.



KIT(카를스루에 공과대학)과의 공동도시설계스튜디오 개최

2014년 3월 31일~4월 9일까지 환경대학원과 독일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KIT)의 건축학과 및 토목공학과 간 공동도시설계 스튜디오가 개최되었다. 환경대학원 이석정 교수와 12명의 '비교도시계획설계세미나 및 도시설계협동과정 도시설계스튜디오 I' 수강생은 독일의 KIT 건축과 Kerstin Gothe, Philipp Dechow 교수와 교통전공 Bastian Chlond 교수 및 10명 학생으로 구성된 참가자와 함께 수원역과 수원 화성일대를 대상으로 한 구도심 재생 도시설계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다.

수원시와의 MOU에 의한 협력사업 및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 스튜디오에서는 다섯 개의 학생 팀이 공동 작업을 통해 구도심 재생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각 조의 아이디어를 최종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1박 2일의 수원시 현장답사 및 Bastian Chlond 교수의 새로운 독일 교통시스템에 대한 특강, 판교-송도 신도시와 인천 구도심 답사 등을 통해 한국 도시 개발의 특성과 향후 과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각 팀의 작업은 공동 스튜디오 이후에도 각 학교의 스튜디오로 지속되며 8월경 브로슈어로 출판될 예정이다.

스튜디오에 참가한 환경대학원 학생은 "독일 학생들과의 작업으로 각자 다른 도시에 대한 시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설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방한에서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서울대학교와 KIT간 MOU가 체결됨으로서, 향후 양 대학 간 인력 교류와 공동 스튜디오 개최 등이 더욱 긴밀한 협력 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계은행 EAP 녹색개발 지식프로그램 (The World Bank EAP Green Development Knowledge Program)



2014년 4월 11일에는 The World Bank EAP(East Asia and Pacific) Green Development Knowledge Program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소속 직원 5명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였다.

The World Bank EAP Green Development Knowledge Program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A five-year Programmatic Approach Green Development Support Program'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EAP Green Development Knowledge Program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 사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운영 방식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세계은행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고, 환경대학원의 도시·환경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직접 방문하였다.

이 날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교수진과 세계은행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막중 원장의 '환경대학원 커리큘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환경대학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석정 교수와 김세훈 교수의 발표가 있던 후 교수진과 세계은행 방문단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단으로부터 세계은행의 역할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해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다.

세계은행 방문단은 이번 환경대학원 방문을 통해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재 양성의 실질적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적합한 인재들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였다.

독일 도시계획의 개념 (Concept of urban planning - models, strategies, cases in Germany)

2014년 4월 22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는 '독일 도시계획의 개념 - 모델, 전략'(Concept of urban planning - models, strategies, cases in Germany)을 주제로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 주택·설계연구소 Wolf Reuter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석정 교수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 특강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시계획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론들이 어떠한 모델로 실제 도시계획에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Stuttgart21'이라는 슈투트가르트시의 도시 개발전략과 튀빙엔시의 건설공동체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특강에서 Reuter 교수는 도시계획이 물리적 요소와 미학적 관점을 추구하던 시대를 지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현대 도시계획 콘셉트 변화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시민 참여로 대표되는 도시계획의 흐름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분산된 권력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튀빙엔과 같은 도시개발에서의 적극적인 시민참여 모델은 시민의 의사가 계획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계획 목표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특강을 통해 시민참여가 어떠한 흐름에서 도시계획의 개념변화를 이끌었는지, 실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막연하게 논의되던 시민참여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의 신도시, 지속가능한 모델 (New town, Sustainable model and cases in China)

2014년 5월 8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는 베이징의 도시계획과 디자인 사무소(ISA) CEO인 Ing. Zhang, Yajin 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New town, Sustainable model and cases in China'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이석정 교수가 한국어 동시통역을 맡았다.



Yajin 박사는 중국에서 뉴타운의 역사는 크게 5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1840년대 이전 베이징을 들 수 있으며, 각 왕조가 베이징에 수도를 두지만 동일한 궁궐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옆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면서 뉴타운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1840~1949년까지 근대 시기 중국의 동쪽 해안에 형성된 산업자본도시를 언급하였다. 세 번째 1949~1979년 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해 내륙지역에 뉴타운이 건설되었다. 네 번째 1979~1992년 시기는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으로 다시 새롭게 개발된 동쪽 해안의 뉴타운을 언급하였다. 거시적인 목표와 전략 없이 난 개발된 네 번째 시기의 뉴타운에 대한 반성으로 1992년 이후 다섯 번째 시기 뉴타운은 다양한 방법, 크기로 체계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건설된 중국의 뉴타운들은 서양의 기능성과 중국의 철학이 융합된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최근 중국의 뉴타운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처럼 미분양된 곳도 많아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뉴타운이었다고 지적하였다. Yajin 박사의 특강은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지 못했던 중국 신도시의 역사와 현황을 들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The Energiewende - Germany`s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 Economy

2014년 2월 12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플러스 사업팀은 독일의 정책 분석가 Arne Jungjohann을 초청하여 'The Energiewende - Germany's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 Economy'라는 주제로 제3차 콜로키움을 주최하였다. Arne Jungjohann은 미국과 유럽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경제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전문가로 현재는 Baden-Württemberg 주 정부 부처에서 정책과 계획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독일의 에너지 전환(Germany's Energiewende)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Arne Jungjohann은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도와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와 전망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핵에너지의 단계적 중단과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핵에너지의 단계적 폐쇄 계획과 이에 대한 대비로 태양광 에너지의 확대 정책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Arne Jungjohann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은 비단 기술적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Climate change and tension in South Asia: Some thoughts for discussion

2014년 3월 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플러스 사업팀은 네팔의 Nepal Centre for Contemporary Research(NCCR)의 디렉터인 Bishnu Raj Upreti 박사를 초청하여 'Climate change and tension in South Asia: Some thoughts for discussion'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주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Upreti 박사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자원부족과 갈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네팔의 상황을 소개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식수 문제와 홍수, 이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범죄 증가는 기후변화가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Upreti 박사는 남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과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전략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Legend, Hope, Promise, Action : Taking Care of the Natural World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플러스 사업팀은 2014년 4월 24일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 중의 하나인 Sierra Club의 부회장 Richard A. Cellarius 박사를 초청하여 'Legend, Hope, Promise, Action : Taking Care of the Natural World'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주최하였다. Richard Cellarius는 Sierra Club의 창시자인 John Muir의 생애와 Sierra Club의 설립배경을 중심으로 1830년대부터의 미국 환경운동을 소개했다. 또한,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right(1969)을 소개하고 1970년대 이래로의 활동을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현재 Sierra Club은 지구생태계의 책임감 있는 사용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Sierra Club은 세계적으로 60만 명의 회원, 240만의 후원자와 1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매년 300



차례의 아우팅을 통해 현장의 사람들에게 환경교육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Sierra Club의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내의 극지역 보호, 환경정의, 환경법, 책임감 있는 무역, 독성물질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제 20회 교통연구세미나

2014년 3월 29일, "제 20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2004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95편에 달한다.

"제20회 교통연구세미나"는 환경대학원 이영인 교수의 개최사와 임강원 명예교수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논문이 7편 발표되었다. 1부 순서로 '서울시 화물차 사고특성 조사연구(조운범 석사과정)'외 2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2부 순서로 '대중교통 통행배정 알고리즘 비교연구(정동재 박사과정)'외 3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1, 2부 논문발표 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임영태 박사(국토연구원), 신성일 박사(서울연구원), 진광성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백승걸 박사(도로교통연구원)는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목적에 따른 계획요소별 중요도 평가(박종일 국토연구원 연구원)', 우수논문상은 '도시지역 주요시설물의 도로표지 안내체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김거중 석사과정)'이 선정되었으며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수는 교수의 폐회사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교통관리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은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4년 4월 7일, 'Road Safety Facts and Policies in Korea' 라는 주제로 "제3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심재익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도로본부)의 강연으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심재익 박사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소개로 강연을 시작하였으며, 교통사고 통계지표 분석,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된 정책 소개 순으로 진행하였다. 심 박사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9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0.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중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구가 2.5배 이상 많은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강제적인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0년대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2,000명을 넘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1990년), 운전면허취득시험 강화(1995년), 과속단속카메라 도입(1997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들의 시행으로 인해 약 29만 건에 달하던 교통사고 건 수가 2012년에는 22만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마지막 순서로 국내 교통안전분야의 미흡한 정부투자를 지적하였다. 201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비용은 약 349억 달러로 국가 GDP의 3.12%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교통안전분야에 투자된 정부재원은 약 13억 달러로,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0.6%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Black Spot)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특강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진 박사는 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가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OECD에서 발간된 관련 보고서에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할 때 까지는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소득수준이 더욱 증가될 경우 사고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제시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현재의 교통사고 감소 추이에 만족하지 말고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의 김병은 선임과장은 현재 도로교통단에서 시행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교통안전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4년 5월 12일, 'SOC 투자와 경제성장' 이라는 주제로 "제3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영성 교수는 교통부문 SOC의 대표적인 지표인 국토계수 당 유효도로 보급률과 유효철도연장 보급률에 대한 국제비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영성 교수는 해당 지표가 비교국가 평균대비 각각 63.4%,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스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4년 기준 약 8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사례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사례에서 SOC 투자 증가가 GR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1990년대 들어서는 깊이 현저히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SOC 투자 재원 대부분이 정부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SOC 투자수준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SOC 투자규모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SOC 투자는 과다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또한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건설투자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유형자산확충과 정부지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투자 대상과 방식이 향후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특강 후 2부 순서에서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근원 박사는 SOC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SOC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규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 효과 외에 혼잡완화, 환경오염감소 등 외부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의 김종학 박사는 현재는 물적 투자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향후에는 SOC 신규건설 보다는 안전 및 시설관리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민간투자와 SOC 투자의 탄력성이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는 SOC투자가 비용대비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건설효과가 인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을 통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SOC투자에 관하여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3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4년 6월 2일, '무상 대중교통이 대안일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제33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김천곤 박사(산업연구원)의 강연으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장수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천곤 박사는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무상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무상대중교통 정책이 현재 미국·호주·영국 등 21개국 68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의 적정성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시행중인 무상대중교통 대부분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소규모 체계의 경우에는 정산시스템 유지비용을 넘어서는 편익이 생성되지만 광역 체계에서는 공적 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무상대중교통 정책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수요증가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무상대중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책시행 이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행을 전환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고급화와 편리함을 강조하는 추세를 주목하였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고 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요금이 교통수단 선택을 좌우했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의 시간과 편의성에 대한 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무상대중교통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교통수단의 이용요금보다는 통행속도와 환승 가능 여부나 프라이버시 보장 등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때문에 무상대중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운영의 완전한 공영제 전환,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확보, 대중교통 수요 유형 분석, 그리고 무상 대중교통 정책의 분명한 목표 설정 이후에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특강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백승한 전문연구원은 정책 시행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행이 경제활동을 발생시킬 수 있고 대중교통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정책 시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경욱 전문연구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요금 감면정책이 아니라 쾌적성 증진, 배차횟수 증가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무상대중교통에 관하여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서울환경포럼 2014년 춘계 학술세미나

2014년 3월 22일, 환경대학원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 2014년 춘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민선6기 환경정책, 환경행정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정전 명예교수, 이동수 교수, 장영기 회장을 포함한 총 32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총 4부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훈 총무이사(의포럼 운영보고가 있음) 후 2014년 2월 졸업학위를 받은 총 9명의 환경관리 전공 졸업생 중 김은지, 신예라, 황보명(환경계획학과 석사), 한준(환경계획학과 박사) 동문의 졸업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졸업생들에게는 학위기념패가 수여되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는 이정전 명예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민선 6기 환경분권 전망과 과제(정희성 동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환경행정과 지방분권"(정우현 동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세션에서는 김선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문이 좌장을 맡고, 정희성, 정우현,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홍(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동문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약 4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친 후, 환경관리 동문 및 재학생은 낙성대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한 뒤 모든 일정을 마쳤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 학술활동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학술활동에 대한 학교의 일부 비용 지원에 힘입은 결과이며,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논의가 점차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협동과정조경학 원세형(박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4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Conference 2014 (주최: Gulf Organisation for Research & Development)"에서 "The Types in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due to Urbanization: A Case Study on Danang City, Vietnam."이란 제목으로 베트남 다낭시의 주거환경 변화와 도시화에 대해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린 AAG(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Annual Meeting 2014에 참가하여, "The Influence of Road Infrastructure on Quality of life: focused on Da Nang, Vietnam"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이은석(박사과정)은 2014년 1월 28일~30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ustain Built Environment Conference(ISBEC)의 포스터세션에 참가 "An applic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for shrinking district: Special reference to Shinwol-Dong area in Seoul,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이재혁(박사과정), **환경조경학과 김민서(석사과정)**, **육은정(석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4년 2월 23일~25일까지 일본 효고대학교(아와지 원예캠퍼스)에서 열린 2014 한일 학생교류회에 참여하였다. 이재혁 박사과정과 김민서, 육은정 석사과정은 일본 치바대학교의 JASSO(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2014년 2월 13일~25일까지 학술교류 일정을 가졌다.

협동과정조경학 양희은(박사과정)은 2014년 3월 14일~1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9회 커뮤니티 디자인 네트워크 컨퍼런스(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에 참가하여 'Urban beekeeping and gardening at the rooftop in GSES bui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주제로 구두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심주영(박사과정) 또한 2014년 3월 14일~18일 제9회 커뮤니티 디자인 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제2분과 세션, New Ruralism Experiments에서 'Characteristics of Gardening Culture in Haebangchon, Seoul'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김정화(박사과정)은 2014년 4월 3일~6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5회 예술과 인문학 아시안 컨퍼런스(The Fifth Asian Conference on the Arts and Humanities 2014)에 참가하여 **협동과정조경학 이명준(박사과정)**과 함께 공동 연구한 'Politics of Landscape: Rethinking Donggwoldo and Okhojeondo in the Early 19th Century Korea'를 발표하였다.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와 해당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2014년 4월 8일~12일까지 미국 탬파에서 열린 "2014 AAG(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nual Meeting"에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이상욱(박사과정)**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and Clustering Pattern of the Creative Industries in Seoul,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서울 창의 산업의 산업별 공간적 집적패턴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 산업별로 집적패턴의 차이가 존재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다.

·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정해영(석사과정)**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Estimation of Latent Impact of Excessive Self-Employed on Labor and Industrie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과도한 자영업자 규모의 정도를 패널 분석으로 측정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과 도시-농촌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이석준(석사과정)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Formation and Growth of Korean-Chinese Ethnic enclaves in Seoul, South Korea'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 내의 서로 다른 조선족 밀집지들의 형성과정을 비교 분석하였고, 여기서 발견된 공통점들을 바탕으로 조선족 밀집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유성현(석사과정)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Research on Development of Food Away From Home Industry in Seoul : Focused on One-Person Household for Consumption of Food Away From Home"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증가하는 1인가구의 규모를 행정동별로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외식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제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1인가구의 업종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가 문화적 소비의 잠재집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환경관리전공 장리아(박사과정), 이윤아(박사), 김희석(박사수료), 송지혜(박사수료), 정자은(박사수료), 이동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5월 11일~14일까지 Switzerland, Basel에서 열린 SETAC Europe 24th Annual Meeting에서 "The climate change induced difference in the multimedia fate of VOCs and PCDDs/DFs as assessed on a monthly basis" 란 제목으로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이는 KPOP-CC다매체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VOC와 PCDDs/DFs의 다매체 동태 변화를 월별/계절간 비교 평가한 것이다.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윤윤정(박사수료)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2014년 5월 28일~31일에 열린 "EDRA45(45차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에서 "Developing Livability Indicators for Enhancing Public Design in Urban Neighborhoods"(주저자: 윤정우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윤윤정)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이희원(석사과정),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4년 6월 5일~7일에 열린 "51st IFLA(제 51회 World Congres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 'The Recovery of Spaces for Emergencies: Designing Waterfronts with Expanding Boundaries'(주저자: 이희원, 교신저자: 이유미 교수)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이석준(석사), 홍보영(석사과정), 이상욱(박사과정), 엄홍민(석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6월 16일 Turkey, Izmir에서 열린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European Conference 2014 "에서 'Representation of Population distribution based on Residential building types by using the Dasymetric Mapping in Seoul,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인구 데이터를 대시메트릭 매핑기법을 사용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거주 인구를 추정하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물대장이 보조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결과로 도출된 개별건축물 인구데이터는 향후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다.

제2회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 살리기 논문공모 장려상

교통관리전공 이진걸(석사과정), 정문학(석사과정)은 2013년 12월 11일에 치러진 도로교통공단 주관의 '제2회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 살리기 논문공모'에서 "운전지속시간에 따른 위험 운전행태 분석- 법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를 이용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전공 김고운(박사과정)과 전영준(석사과정)은 사범대 과학교육과 남보은(석사과정)과 함께 2014년 2월 20일~21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치러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대회"에서 'Complexity의 번역용어 '복잡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생태학회분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이도원 교수의 환경체계론 수업의 기말보고서를 발전시켜 complexity의 개념을 둘러싼 60년대 이후부터의 시대별 연구동향과 연구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complexity의 개념은 '겹치고 섞인(複雜) 얽힘을 강조하기보다 생태계 내의 비선형적 상태에서의 독립적 구성 요소들이 '겹치고 합한(複合)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표자들은 "complexity"의 번역용어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복잡성'보다 '복합성'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우수논문상

2014년 4월 5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14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협동과정조경학 원자연(박사과정)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초사(楚辭)』에 나타난 식물의 문화적 의미와 향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는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애국 시인 굴원(屈原: BC 340~277)에 의하여 창작된 시집 『초사』에 나타난 식물들을 도출 및 정리하여, 식물들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초나라 사람들이 가진 식물의 향유방식을 고찰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전국 시대 사람들은 다수의 식물들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초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재와 그 식재들에 담겨 있는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를 제시하였고, 전국 시대 초나라의 배식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조경분야에서 식재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춘계산학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최현지(석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4월 26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2세대 모형에 기초한 주택자산의 유통화 선택조건'라는 제목으로 분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위한 은퇴자세대와 자녀세대에 걸친 주택 자산의 유통화 선택 조건을 수리모형화 함으로써 자녀 부양 방식과 역모기지 방식의 금전적 가치를 비교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계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활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이상욱(박사과정), 이석준(석사, 박사과정 입학예정), 홍보영(석사과정), 엄홍민(석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4월 26일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 "20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에서 '대시메트릭 매핑 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건축물별 주거인구밀도의 재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정보기밀성(confidentiality)등을 이유로 일정한 공간적인 통계단위로 집계되어 제공되고 있는 인구데이터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대시메트릭 매핑 기법을 통해 단위 건축물별 거주인구밀도를 재현하였다.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수상

2014년 6월 17일, 환경조경학과 박이랑, 안도영, 조소현(석사과정) 학생은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폐선부지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폐선부지 공모전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우동교차로~송정역 구간을 상업시설로 탈바꿈하려는 철도공단의 행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참신한 아이디어로써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부선 폐선활용 네트워크에서 주최 및 후원하였다. 팀 이름 '달려라 몽몽!' 아래 세 학생들은 램콜하스의 'Tree City'에서 영감을 받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에 의한 발전'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민에 의한 발전'을 위해 사람들을 부지로 끌어 모을 특별한 랜드마크를 심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지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상세한 현장 답사 및 잦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미포~송정역 구간 철로를 따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수증기구름 '몽몽'을 제안하였으며, '어디에도 없는 폐선부지만의 특별한 경관'을 강조하고자 과감하게 다이어그램 등의 정보를 간소화하고 대표이미지 하나를 크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도시및지역계획전공 기명성(석사전공), 김다현(석사전공), 김정아(석사전공)은 201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와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서울 속 세계여행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색채디자인과 주차장활용을 통한 이태원 보행스토리텔링 강화'라는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 속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서래마을, 이태원, 명동 중국대사관 등을 대표적인 관광명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들은 이태원을 크게 다섯 거리로 나누고, 각 거리 끝에 주차장을 조성, 그리고 거리별로 다른 색채 디자인과 연계마케팅을 제안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014년 전반기 국내 학술대회

도시를 살리는 소통

2014년 5월 9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도시를 살리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최막중 원장의 축사와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주제 발표에는 총 5명의 학자들이 소통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후 이창현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용찬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찬호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라도삼 실장(서울연구원), 이원재 소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등 미디어와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차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는 ‘공동체 미디어로서의 전통미디어와 지역공동체-동네신문, 골목잡지, 마을라디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차재영 교수는 오늘날 대도시가 안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해체나 부재에 따른 주민 간의 소외와 의사소통 단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차 교수는 도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기존의 다른 미디어 제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네신문, 골목잡지, 마을라디오 등의 전통미디어나 올드미디어를 기술적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지역 공동체미디어들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피고, 지역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재현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뉴미디어와 정치참여: SNS와 탈구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재현 교수는 오늘날 정치적 지형에서 SNS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SNS 지형을 탈구(dislocati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이재현 교수는 SNS를 ‘비장소’로 간주하였다. 비장소는 전통적인 장소의 요건인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곳이며 SNS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공간적 실천에 주목하면서 SNS라는 사회적 공간 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관습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한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식민지화, 보수 언론과 진보언론의 탈구와 진보언론의 SNS 지배 현상,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와 자기 참조에 의한 담론의 반복적 재생산, 미시적 일상들의 이벤트화, 정치적 멘탈리티와 오락적 멘탈리티의 극화 등의 사회현상이 드러나는 SNS의 지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SNS가 단순히 전파가 아닌 계몽과 교육의 기능을 회복할 것과 SNS가 제3세대 언론으로서 정파적 언론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SNS의 온·오프라인의 연계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서울의 공공환경 디자인-Urban Screen으로서 동영상 전광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로서 서울의 공공환경 디자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서울의 시각환경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업광물물을 한국적 특징으로 보면서, 간판은 '문제'가 아닌 도시와 건축물의 복합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도시경관에서 사유와 소통을 위한 여백 찾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발표자는 Urban Screen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90년 대 초반부터 등장한 서울시의 동영상 전광판을 꼽았다. 이어 동영상 전광판은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변화하는 이미지로 시간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투사하며, 도심에서의 여유를 빼앗고, 강력한 이미지는 깊은 사고의 여지를 박탈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익광고를 전달하는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영상 전광판에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종혁 교수(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는 '도시의 공공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한 PR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도시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소통의 단절을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골목과 이웃을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소통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소통을 위한 관념적 의식과 공공문제에 관한 관계성은 정체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도시 인프라와 기술의 접점에 놓여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용을 통해 시민사회, 공공기관, 기업 등이 물리적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공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상인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는 '도시의 플래카드: 너무나 한국적인, 너무나 후진적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흐드러져 있는 플래카드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 풍경이 훼손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풍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통 구조가 합리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으로 내딛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호의 나라이고 표어의 나라이며, 신전의 나라이고 계몽의 나라, 과시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플래카드를 도시미디어로 이용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수막 방식의 소통은 시대역행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해 증가하고 세련되어 가고 있는 도시 미디어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성, 통일을 여는 도시

2014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정림건축문화재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후원으로 "개성, 통일을 여는 도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 5월에 개최된 심포지엄 "평양, '도시'로 읽다"의 후속으로 평양에 이어 올해에는 '개성'을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현재 개성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개성의 '개(開)'가 의미하는 것처럼 개성을 통해 북한의 문을 열고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성진 학예연구사(문화재청)는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도시 개성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일련의 추진 경과를 살펴본 뒤 등재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발표를 통해 개성의 역사와 유적을 소개 및 2000년 5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고, 2013년 6월 23일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이 된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등재 과정과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남북 간의 문화재 분야가 안정적인 교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재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한 발표자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실행보다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당장 보존·복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재들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소영 박사(국립산림과학원)는 북한학 전문가로 '사회주의 지방도시-개성과 개성시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공중폭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고 사회주의적 도시로 재건하였지만, 유독 개성만은 휴전회담이 열린 도시였기 때문에 전쟁과 폭격으로 인한 도시 파괴를 겪지 않고 도시의 역사성을 잘 보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의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전하였으며, 동시에 개건 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도시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개성에 있는 공공시설의 배치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학교, 시장, 국가기념시설 및 추모시설, 주민 편의·문화 시설, 산업시설의 특징과 분포를 통해 사회주의적 도시로 재건되었지만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서 개성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북한의 지방과 지방도시 연구는 지방 각각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자인 양문수 교수(북한대학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는 '개성공단 산업도시,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개성공단을 '통일의 초석'으로 보는 관점에서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현주소를 짚어보며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하였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이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소개했다. 사업 초기 개발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자금난, 각종 투자조건을 둘러싼 남북의 견해 차이, 핵심임이나 한미 군사훈련 등과 연관된 한반도 정세에 따른 여파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착실히 진행되어,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의 사업 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공단 착공식, 2006년 공단 부지조성공사, 2007년 10월에는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단지조성을 비롯해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전력, 용수, 통신,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시설 등 모든 기반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또한, 발표자는 경제적 입장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 회생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자리 증대,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적 개방 이미지 재고, 남북한 교류 협력 등과 같은 이점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개성공단은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며, 군사 요충지를 남북 경제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하고,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개성공단이 가진 한계로 전략물자 반출 문제와 원산지 규정문제, 노동력 공급문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사업의 외부적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 등을 지적하였고,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허재완 교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는 '통일시대 미래도시,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통일 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과제들을 검토하고 개성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야하는지 발표하였다. 허 교수는 통일에 대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통일, 즉 정치·제도적 통일, 국토·경제적 통일, 주민의식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일의 완성을 위해 정치적 통일에 있어서는 개성이 통일 한국의 '수도(首都)'가 되어야 하며, 국토·경제적 통일을 위해서는 개성이 통일 한국의 '글로벌 경제특구'로 육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개성이 통일 한국의 '멜팅팟(melting-pot)'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2014년 3월 26일 환경계획연구소는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의 저자 조한 교수를 초청하여 '감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를 주제로 수요집담회를 열었다. 조한 교수는 2009년에는 젊은 건축가상, 2010년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생태·생성 건축철학 연구소 대표이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한 교수는 강연을 통해서 서울을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감동적인 장소들을 보여주며, 장소가 주는 감동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감동과 기억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조한 교수는 앙리 베르그송의 사유를 바탕으로 감동은 공간이 아닌 시간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일본식 가옥과 오늘날의 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서촌의 풍경을 보여주며,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물, 건물, 공간, 다시 말해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시각을 통해 기억과 감동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각은 감동과 기억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칸트와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공간보다 시간이 더 본질적인 개념이며, 시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산 재개발 계획을 '눈의 도시'로 구분하였는데 '눈의 도시'는 관조적이고 초월적이며 시간을 담아내지 못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간을 담고 있는 건축은 장소의 기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감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며 그 기억과 감동을 훼손하려는 것에 저항할 줄 아는 적극성과 주제적 미학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며 강연을 마쳤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건강을 위한 공간 역학: 연구와 실제 (Spatial Epidemiology for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14년 4월 10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는 'Spatial Epidemiology for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미국 Texas A&M University의 한대권 교수의 초청 수요집담회가 열렸다.

역학(Epidemiology)은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한대권 교수의 최근연구는 과거, 질병에 관해 가족력, DNA, 감염원을 역추적하는 것과 다른 접근방법으로, 새롭게 GIS에 기반한 공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GIS/공간 연구는 Life course epidemiology로 질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결정적인 시간대와 지역을 GIS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질병 발병 지역과 빈도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런 요인으로 유전학 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 최근 한대권 교수는 유방암 역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에서 유방암 발생지역의 지도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질병 역학연구와 한대권 교수의 최근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에는 발병의 '개인차'를 중점에 두고 질병 역학을 추정해왔다면, 건강에 대한 공간 역학 연구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건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DDP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답사를 지원하는 “Field Wal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4년 5월 14일에는 최근 개장한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다녀왔다. 전상인 환경계획연구소장, 손용훈 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하여 환경대학원 학생 20여 명과 함께한 이번 DDP 방문에서는 현장가이드의 안내로 DDP 살림터, 배우터, 알림터 등을 둘러보고 간송문화전도 관람하였다.

DDP는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의 약자로 규모는 대지면적 6만 2957㎡, 건축면적 2만 5008㎡, 연면적 8만 5320㎡의 크기이다. 주요 시설은 알림터, 배우터, 살림터, 어울림광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림터(art hall)는 국제회의장으로 있으며, 컨벤션·신제품 발표회, 전시회, 패션쇼, 콘서트, 공연, 시사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배우터(museum)는 디자인박물관, 둘레길쉼터, 디자인전시관, 디자인 둘레길과 어린이·청소년과 가족 단위로 디자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살림터(design lab)는 살림관, 잔디사랑방, 디자인나눔관으로 구성되며, 디자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Field Walk 참가자들은 DDP 탐방 후 인근 청계천 주변과 광장시장도 둘러보았다. 광장시장에서는 광장시장의 명물인 빈대떡과 마약김밥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하며 답사에서 서로 느낀 점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본 답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업소개

환경계획·설계 :

2014 수원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공동연구



“환경계획·설계”과목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양 학과의 교수들의 대표수업 및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2014년 환경계획·설계는 수원시와 MOU체결을 바탕으로 진행된 도시환경 공동연구 프로젝트로서, 수원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고민하고, 도출해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학기 환경계획·설계는 일련의 수업에서 끝나지 않고 수업 결과물을 더욱 발전시켜 책자로 제작하여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원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이유미 교수와 환경계획학과 학과장 윤순진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도시계획·환경관리·환경조경·교통전공의 학생들이 10개 팀을 이루어 각각 컨벤션센터, 노면전차예정부지, 당수동테마공원, 영흥공원, 경기도청사 이전부지, 화서역 인근부지, 종합운동장 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각 조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외부 전문가의 데스크 크리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연구주제발표, 중간·기말 발표를 거쳐 6월 18일 수원시에서 최종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수상작은 환경대학원에서 교수진 및 학생 심사 평가(5월 28일) 결과와 수원시 제2부시장 및 수원시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원시 최종 발표(6월 18일)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되었다. 수상은 작품상, 아이디어상, 필드워크상,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작품상은 전반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표현력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팀에게, 아이디어상은 학생다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접근성이 돋보이는 팀에게, 필드워크상은 수원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며 땀 흘린 팀에게 시상하였다. 시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작품상은 9조 Tramvel친구들(제지현, 강준호, 김혜빈, 하정석, 이민주, 박이랑, 손나영, 이상민)의 "Tramvel 9(노면전차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개발)"이 수상하였다. 기존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하여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행궁동 도심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내리고 싶은 정류장을 설계하였다.

· 아이디어상은 3조 개발제한구역(이주형, 정화영, 선종록, 심혜영, 김수진, 조민, 민경훈, 조수현, 박보영)의 "휴(hue) 가(加)- 수원의 색을 더하다 -(KT&G 부지 활용 방안)"이 수상하였다. 3조는 지역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텃밭, 자연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색을 제시하여 수원에 멋있고자 하였다.

· 필드워크상은 2조 마실가자(김지현, 구경하, 김지혜, 윤명환, 신예나, 김애니, 통가락, 이동길, 양지나)의 "마실가게(노면전차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개발)"이 수상하였다. 낙후된 청과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활동과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선보였다.



교수동정

-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을 받아서 '아세안4개국 저탄소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연구를 완료했고, 그 연구결과를 2014년 2월 '신흥도시 개발 모델: 베트남, 캄보디아 도시설계 스튜디오 (김세훈, 윤정원; 시공문화사)'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다. 이 연구의 일부와 도시설계스튜디오의 성과물이 지난 3월 월간 '환경과 조경'에 '아시아 디자인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 김세훈, 윤정원. 『신흥도시 개발 모델: 베트남, 캄보디아 도시설계 스튜디오』 서울: 시공문화사, 2014.)

2014년 4월, 김세훈 교수와 연구팀 총 다섯 명은 미래창조과학부(연구재단) 연구교류지원사업의 후원으로 미국 보스톤의 Harvard GSD와 보스턴재개발공사(BRA)를 방문했다.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구조와 건축적 특징이 폭염 피해와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세훈 교수는 서울대발전기금과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상반기에 두 편의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밀실된 서울의 도심형 한옥 분포 패턴과 그 도시적-건축적 원인을 탐구하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도시민의 보행편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 Yongchan Kwon, Saehoon Kim, Bonghee Jeon. "Unravel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development of Seoul's Historic Hanoks." *Habitat International*, 41 (2014): 280-289. [SSCI]
- Saehoon Kim, Sungjin Park, Jae Seung Lee. "Meso- or micro-scal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Pedestrian Satisfac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30 (2014): 10-20. [SSCI]

이외에도 2014년 4월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세훈 교수 연구팀의 이민정(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은 성북동 저층주택지의 변화와 한옥의 비주거용도 이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 이민정, 김세훈. 2014. "성북동 도시형 한옥의 용도변화 현황과 형태변화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348-355. Seoul, Korea. 19 April, 2014.

-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가 담당하는 환경생태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도원 교수는 2011년 연구생으로 방문했던 유제훈(Arizona State University)과 함께 한국의 송계를 사회-생태 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 한국 고유의 송계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으며, 금산 지역에 있는 89개의 송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가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의 기간 동안 주로 협동적(cooperative) 변화 또는 비협동적(non-cooperative)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다양성과 사회그룹의 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Yu, D., J.M. Anderies, D. Lee, I.P. Ibarra. 2014. Transformation of Resource Management Institutions Under Globalization: The Case of Songgye Community Forests in South Korea. *Ecology and Society* 19(2):2. <http://dx.doi.org/10.5751/ES-06135-190202>.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과 기상관측을 통해 경북 의성군 점곡면사촌가로숲의 계절별 풍속 저감효과를 연구했다. 사촌가로숲은 마을 서쪽의 평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방풍림으로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팽나무 등 낙엽활엽수 노거수가 우점종인 전통 마을숲이다. 연구 결과 사촌가로숲 잎 밀도(foliage density)의 감소가 방풍 효과를 향상시켰다. 이는 방풍림의 풍속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치기를 통한 잎 밀도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잎 밀도의 변화와 공기역학적 풍속 감소의 정량적 관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잎 밀도 량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Koh, Insu, Chan-Ryul Park, Wanmo Kang, Dowon Lee. 2014. Seasonal effectiveness of a Korean traditional deciduous windbreak in reducing wind speed.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7(2): 1-7.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전국 시·군 지역의 벼 병원균 확산 공간 연결망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병원균 확산 연결망의 중추적 경로는 서해 연안의 행정구역 간에 연결된 링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해 연안과 경남·경북의 핵심지역들을 연결시키는 허브지역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병해충 방제 공동대응을 위한 방제 구역 할당과 병해충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한 농업환경 지리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완모, 이도원, 박찬열. 2013. 그래프 이론을 적용한 벼 병원균 확산 공간 연결망 분석. *한국농림기상학회지* 15(4):201-209.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2014년 2월 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생태학 분과에서 수원시와 성남시를 중심으로 번식기의 실제 조류 출현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군 다양성에 대한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의 종 간 특성 거리 값의 수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 연구로 증명했다.

• 조유리, 배소연, 이용경, 이도원. 2014. 기능군 다양도 평가에서 특성 조합의 변화에 따른 종 간 특성 거리 값의 수렴에 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 2월20일-21일.

이도원 교수는 환경교육협동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여 초등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 더불어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재량 활동 시간과 연계한 생태 체험 활동의 개발 및 적용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를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대학원과 소속 교수들은 환경교육협동과정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환경교육협동과정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 남미리, 김태연, 조유리, 이도원. 2013. 초등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서울 OO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례 연구. 2013년도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발표대회우수논문상. 7월 13일.

조유리(환경교육협동과정 석사과정)는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순진 교수와 함께 연구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거주권 보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고리, 월성, 한빛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과 원전 건설 후보지인 삼척의 지역 주민들을 심층면담하고 이들의 거주권과 정주권 보장의 문제를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 조유리, 윤순진, 2014.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거주권 보장,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바라보기. 2014년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2월 19일.

»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을 보여주었다.

• 한은정 김희석, 이동수, "An emission model tracking the life cycle pathways of human pharmaceuticals in Korea"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9 (1) 2014. Jan 한국에서 의약품의 전주기 일정을 고려한 배출량 모델의 개발 및 평가 SCIE

• 송지혜, 김동원(박사), 김희석, 이동수 "Need of accurate model prediction of variability of the concentration ratio for testing coherence among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 A case study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266, 2014. FEB. 다매체 환경질 기준간의 정합성 평가를 위한 다매체 동태모형의 조건에 대하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사례 연구 SCI

• 채연연, 송지혜, 이윤아(박사), 이동수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the fate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470 (1) 2014 FEB 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다매체 동태변화평가 SCI

-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행복의 공간사회학'이란 논문을 "문화와 사회" 제16호에 게재하였으며, "국토계획" 49(2)호에는 김미영(박사과정)학생과 함께 '오감(五感)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걷기'라는 논문을 실었다. 또한 전상인 교수는 다수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하였다. 2014년 4월 21일에는 두산웨이홀에서 개최된 경영자독서모임(MBS)에 초청되어 저서 『편의점 사회학』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5월 9일에는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도시를 살리는 소통"에서 '도시의 플래카드: 너무나 한국적인, 너무나 후진적인'을 발표하였다. 5월 23일에는 서울대 사범대학교 미래교육디자인연구사업단이 주최한 "제1회 미래교육디자인 지식연구포럼"에서 '한국 사회학의 토착화, 미시화, 대중화 -『아파트에 미치다』와 『편의점 사회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으며, 같은 날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사회학회 2014년 봄 학술대회"에서는 '모·국어 사회학'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6월 3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로 보는 우리문화 산책강좌"에서 '아파트로 읽는 대한민국사'를 강연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이어 2014년 하반기에도 조선일보 "朝鮮칼럼"의 고정필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014년 2월28일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제23대 회장(임기 2년)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에 창립되어 계획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5,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출간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수경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2권으로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저서를 2014년 4월 20일에 출간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들은 경제가 침체하면서 인구감소와 고용감소로 인해 상업 및 공업 시설, 주택지가 쇠퇴해가고 있다. 도시쇠퇴의 양상은 공실률이 높거나 폐점 상가가 많은 거리, 버려진 오래된 산업부지와 공장, 허물어져가는 주택,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 인프라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도시계획 패러다임 자체가 오랫동안 인구-고용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도시재생 정책도 상당히 개발지향적 특징을 띄고 있다. 중심시까지 활성화, 복합용도 개발, 주거지 재생 등 건물, 특정 지구, 인프라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들은 성장을 전제로 외부 수요를 기대하면서 해당도시로의 인구와 고용 유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쇠퇴도시에 인구와 고용을 유치하거나 지속시키려는 도시재생 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우며, 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는 도시 축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들의 상이한 축소 원인과 각 축소도시 상황에 맞는 신재생 전략을 어떻게 실현시켜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경우 쇠퇴도시보다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온 쇠퇴도시의 위기를 축소도시의 기회로 인식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쇠퇴'라는 단어의 혐오감을 극복하고 쇠퇴되어가는 도시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들 도시에 걸맞는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인구규모가 작으면서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름답다(Small and Old is beautiful)'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함께, 도시의 인구와 고용 성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개발의 부정적인 산물이 아니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고 쇠퇴도시를 활성화시키려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축소도시에 걸맞는 신재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축소도시 4개 유형별로 사례도시를 각각 선정하여 각 도시의 실태와 잠재력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방안을 비록 다소 거칠지만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해당 축소도시가 지니고 있는 자산과 도시 환경을 살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복한 주민들의 삶터가 되는 도시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당 도시가 쇠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의식과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나간다면, 비록 도시 규모는 작지만 고품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편의점 사회학』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월 『편의점 사회학』(민음사)을 출간하였다. 도시의 대표적 소비공간인 '편의점'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의식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전상인 교수는 그간 아파트, 옥상 등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우리 사회나 도시의 양태를 분석해왔는데 편의점 분석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의 최초 발상지 미국은 물론 편의점의 최대 발흥지인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지금 현재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편의점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다. 가게, 빵집, 약국, 꽃집, 금은방, 식당, 술집, 카페, 여행사 등 상업시설 뿐 만 아니라 금융, 치안, 복지 등에 관련된 공공 영역마저 흡수하면서 만능복합 생활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서 편의점은 신종 도시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특히 저자는 편의점의 숨겨진 이면과 불편한 진실에 집중한다. 사람들을 소비주의 사회에 길들이는데 편리하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 편리하며, 신자유주의 유목화 시대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편리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를 가리는데 편리하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의이고, 무엇을 위한 편리인가라고 저자는 묻고 있다.

석·박사과정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

2014년 3월 3일 입학식에서 재학생에 대한 2014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에는 크게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 등 총 다섯 종류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김영업** 장학금이 있다. 이번 1학기에는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김영업**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4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김기은**(박사3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김태균**(석사2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미라보 장학금은 김병린 명예동창회장의 배려로 미라보건설에서 1993년도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주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조경학과 **김민경**(석사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대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과 학생회장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정재훈**(석사3학기), **양수연**(석사3학기), **김다혜**(석사4학기), **이유민**(학생회장), 환경조경학과 **노초원**(석사4학기)에게 수여되었다.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과정에서 전달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유재성**(석사2학기), **김거중**(석사3학기), 환경조경학과 **김현정**(석사4학기)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관리 전공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관리전공 **정동재**(박사2학기)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환경관리전공 **유규연**(석사졸업), **김은지**(석사졸업), **황보명**(석사졸업)이 선정되었다.

김영업 장학금과 **청송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인 하늘마당을 관리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각각 환경조경학과 **이소영**(석사1학기)과 **김현지**(석사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2014학년도 전기 입학

높은 경쟁률을 보인 2014학년도 전기 입시의 합격자 발표(11월 28일)에서 박사과정 29명, 석사과정 56명에게 합격이 통보되었다. 환경계획학과에서는 박사과정 19명(도시및지역계획전공 11명, 교통관리전공 1명, 환경관리전공 7명), 석사과정 38명(도시및지역계획전공 17명, 교통관리전공 6명, 환경관리전공 15명)이 합격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에는 10명이 합격하였으며,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에는 총 18명이 합격하였다. 3월 3일 월요일, GLocal Hall에서는 신입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전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환경대학원에서 2014년 전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 29명으로 총 37명의 신입생이 참석하였으며, 총 3부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과 조교들의 학과 및 환경대학원 시설 소개, 수료요건 소개가 있었고, 2부에서는 6개 조로 나뉜 신입생들이 서로를 소개한 후, 교수님들과 동기들 앞에서 앞으로의 학업계획과 포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낙성대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동계워크숍

환경조경학과는 2014년 1월 22일~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여에서 동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학과 교수 및 조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54명이 참가하였다. 백제의 유적과 옛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여에서 백제문화단지, 관북리 백제유적, 부여나성 복원현장, 궁남지, 신동업 박물관 등을 답사하는 동안 옛것과 현재의 것을 조화롭게 배우고자 하는 환경조경학과 신입생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정원 가꾸기 행사 및 사진 공모전

2014년 4월 9일 봄맞이 환경대학원 정원 가꾸기 행사 열렸다. 환경대학원 교수와 학생, 교직원 모두가 봄의 전령사가 되어서 초화류 식재, 덧밭 가꾸기 등 옥상정원에 녹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를 통해 다양각색의 꽃이 알록달록한 빛깔로 수놓으면서 다양한 꽃구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 행사와 연계하여 제3회 환경대학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구성원들의 학교생활과 건물 실내외부의 모습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9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김지현(환경조경학과) 학생의 '거울'이라는 작품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2등으로는 김신영(환경관리전공) 학생의 '기대'와 이제이(환경조경학과) 학생의 '빛이 만드는 공간', 3등은 박상현(환경조경학과) 학생의 '빛색' 그리고 사람과 이희원(환경조경학과) 학생의 '쉼X쉼'이 선정되었다.



스승의 날 및 어울림의 날 행사



2014년 5월 14일 환경대학원 스승의 날 행사와 어울림의 날 등산대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환경대학원 2층 P&C룸과 관악산에서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는 P&C룸에서 재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다 같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 후에는 어울림의 날 행사가 곧바로 이어졌다.

이번 어울림의 날 행사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체육대회 대신 참가자 전원이 노란 손수건을 메고 관악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공별 교수, 환경계획 및 설계 수강생 그리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1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등산 도중에는 관악산 공터에서 120여명 전원이 원을 지어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진행하며 학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악산 등반 후 낙성대 마포소금구이에서 다 함께 식사하며, 등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스승의 날과 어울림의 날 행사를 통해 평소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못했던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다른 전공 학생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회 활동

학생회장 선출

2013년 6월 11일~13일까지 '2014년 환경대학원 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87명중 총 124명이 투표하였으며 양 후보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넘지 못하여 선거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이에 차후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표결과

- 기호 1번 이성욱(환경계획학과) 59표
- 기호 2번 강지아(환경조경학과) 59표
- 무효 6표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13년도 서울대 공개강좌 A등급(우수) 평가

서울대학교는 각 기관에서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개강좌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과정은 격년으로 평가를 받는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은 2014년 4월 중순에 발표된 '2013년도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평가결과'에서 A등급(우수)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대학원은 1995년부터 도시·환경최고위과정(SGS)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30기까지 881명이 수료하였다.

- 1995년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의 개설

현대의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시 및 환경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1995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을 개설

- 2001년 과정의 개편: 「CEO환경경영포럼」, 「도시·환경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

Multi-Sectoral Approach 달성을 위한 모집단위 광역화, 발제와 토론 위주의 포럼형식으로 변화
외부 운영위원 참여를 통한 수요자의 Needs 적극반영

- 2007년 세부과정 명칭 변경: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도시·최고전문가과정」

'환경경영'의 이슈가 윤리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포함,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위해 변경 필요

- 2012년 「도시·환경최고위과정」으로 통합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도시'와 '환경'을 상호 배타적 관점이 아닌 보완적 관점에서 융·복합하여,
'도시'와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대학원의 다학제간 교육·연구의 특성을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으로 설정, 통합하게 됨

통합기수 1기~30기(881명 수료)

2014년 4월 24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과 옥상 하늘마당에서 제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2013년 9월 24일 출범하여 7개월 동안 총 29회에 걸쳐 도시·건축·조경·교통, 환경, 인문·예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환경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가자 35명 중 29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선배 Fellow, 수료자 등 50여명의 함께하며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30기 과정을 수료한 29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웅(타드 대표이사), 강완수(대동녹지건설, 대아종합조경 대표이사), 고용현(정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상무이사), 김복식(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김상욱(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처장), 김완중(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사), 김현택(신영FC 부장),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나학균(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박강희(프라브컴퍼니 실장), 박건태(Gaw Capital Advisors Korea 대표이사), 변종호(프로테크 대표이사), 서정모(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신우식(예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현범(닛시트로닉스 대표이사), 이강수(고창군청 군수), 이미경(환경재단 사무총장), 이정현(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종탁(미래엔텍 대표이사), 이진수(라운 대표이사), 이창현(서울연구원 원장), 이형철(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 전태호(삼진엠펜에스 사장), 조영일(S-Oil 부사장), 채내희(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최원만(신화 컨설팅 사장), 최재정(JSB 대표이사), 최현호(서울산업주식회사 이사)



SGS 30기 해외 시찰

제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2014년 1월 17일~22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세계 3대 열대우림, 보르네오 생태보고 탐방"을 다녀왔다. 30기 23명, 29기 2명, 최막중 원장, 성종상 주임교수, 홍종호·최명철 공동주임교수 등 32명이 참여하였다.

보르네오 섬은 남미 아마존, 아프리카 콩고분지와 더불어 세계 3대 열대우림 지역으로, 특히 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 산(4,095m)이 위치한 북동부 말레이시아 사바주는 열대우림내 오랑우탄, 긴코 원숭이, 피그미 코끼리 등 세계적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고이다.



SGS 30기 국내 시찰

부산 도시문화·생태탐방

SGS 30기는 2014년 3월 1일~2일에 "부산도시문화·생태탐방" 행사를 가졌다. 강완수(30기 회장, 대동녹녹지건설 대표이사)의 초청으로 30기 펠로 25명이 함께했다. 부산시민공원과 감천마을 등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현장과 이기대, 을숙도 등 자연환경을 둘러보았다.



수원도시문화생태탐방

SGS 30기는 2014년 3월 22일에 "수원도시문화생태탐방" 행사를 가졌다. 손혁재(SGS 30기)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초청으로 30기 펠로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손 원장의 상세한 역사·문화적 해설을 들으며 수원화성, 지동시장, 행궁마을 벽화골목 등을 살펴보았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성종상 주임교수와 SGS 30기 펠로 20여명은 2014년 5월 24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하였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람은 채내희 펠로(SGS 30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사무처장)의 초청으로 '안중근 의사 생애 고찰'의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대한민국 예술원 60년을 기념하여 이종상 화백 외 57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현대미술관 '어제와 오늘' 관람은 제30기 과정에 특별강연을 하였던 이종상 화백의 작품세계를 좀 더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동문소식

8

동창회

교통관리전공 2014 홈커밍데이

2014년 5월 10일, 교통관리전공에서는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4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강원 명예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를 포함한 교통전공 동문과 재학생 등 총 43명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버들골을 출발하여 승천거북전망대와 연주암을 거쳐 하산하는 등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서울대학교 입구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저녁식사 시간과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서울환경포럼 신년하례회



2014년 1월 11일 서울대학교 소담마루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및 서울환경포럼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와 환경관리 이동수, 윤순진 교수,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회장, 전의찬(세종대학교 교수) 前 회장, 환경관리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 총 43명이 참석하였다. 서울환경포럼 장영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신년하례회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간 덕담을 나누며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서울환경포럼 등반대회

서울환경포럼은 매년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토요일 오전 서울환경포럼 회원들과 교수님, 재학생들과 함께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5월 10일 개최된 이번 등반대회에는 김동영 동문(경기개발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등반은 오전 10시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정상을 거쳐 낙성대로 이어졌다. 약 5시간에 걸친 산행을 끝내고 인근 식당에서 서울환경포럼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환경조경학과 94학번 사은의 밤

2014년 5월2일 환경조경학과 94학번은 입학 20주년을 맞이하여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은의 밤 행사에는 전·현직 교수 및 조교, 94학번 동문 등 30명이 참석하여 함께 했던 옛 추억을 공유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본 행사는 79학번 안계동(동심원 소장)동문의 지원으로 Prunus Garden에서 진행하였으며, 20년 전 과거를 회상하는 추억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 제창, 기념품 전달식 등의 행사와 만찬을 가졌다. 이번 사은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성장한 94학번 동문들의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배움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 2014년 신년교례회



SGS 동창회(회장 문국현)는 2014년 2월 20일 환경대학원 82동 GLocal Hall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국현 회장(SGS 7기,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한솔섬유 대표)을 비롯한 40여명의 동창회원이 함께 자리했다. 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원의 비전과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동창회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며 동창회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2014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동창회의 임원단 구성도 마무리되었는데 송두영(SGS 22기, 대승산업 대표사장) 수석부회장과 6명의 부회장, 장학·재정·운영·대외협력·비전전략·사회복지 등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1인·사무부총장3인 등 조직구성이 확정되었으며, 각 기수 회장 및 사무국장도 함께 자리해 각기 자신의 회계수 결산이였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및 동창회 발전계획 발표 / 특별강연

SGS 동창회(회장 문국현)는 2014년 3월 28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동창회 발전계획 발표와 특별강연의 자리를 가졌다. 최막중 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의 화합을 잘 이끌어 준 조백일 5대 회장(SGS 6기)과 김광호 사무총장(SGS 18기)께 감사를 전하고, 문국현 6대 회장(SGS 7기)과 함께 SGS 동창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원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문국현 SGS 회장은 신입 집행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창회 발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단기계획으로 조직정비 및 회원 간 소통·참여 강화를 위해 사무국 정립, 회원 DB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SGS 총동창회의 사단법인화 및 자체사업 운영, 동창회 기금 1억 원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기후변화와 화학물질'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이루어졌다.

제6대 SGS총동창회 집행부 조직체계

“2014년은 SGS 총동창회 재정립의 해”

- 기다리는 총동창회에서 다가가는 동창회로 -
- 조용한 동창회에서 움직이는 동창회로 -
- 집행부의 동창회에서 회원중심의 동창회로 -

<p>감사</p> <p>박만길 (3기) 방기석 (14기)</p>	<p>회장</p> <p>문국현 (7기)</p>	<p>직전회장</p> <p>조백일 (6기)</p>
<p>사무총장</p> <p>최송휴 (22기)</p> <p>[사무부총장] 김현수 (14기) 조창희 (22기) 조은혜 (29기)</p>	<p>수석부회장</p> <p>송두영 (22기)</p>	<p>고문</p> <p>우경선 (1기), 오원석 (2기), 전홍규 (3기), 이재희 (7기), 곽결호 (7기), 남승우 (9기), 이승한 (11기)</p>
	<p>부회장</p> <p>남궁근 (16,17기) 이경민 (19기) 최병진 (20기) 조익수 (14기) 박찬정 (16기) 김광호 (18기)</p>	<p>자문위원</p> <p>김영구 (3기), 정운경 (11기) 이용란 (14기), 원홍순 (15기) 김기영 (22기), 고병준 (22기)</p>

분과별 위원회			
<p>장학위원장 김종일 (25기)</p>	<p>재정위원장 은종환 (26기)</p>	<p>조직위원장 전태효 (30기)</p>	<p>대외협력위원장 김성규 (26기)</p>
<p>[비전사업위원장] 이승중 (20기)</p>	<p>[사회복지위원장] 마승희 (20기)</p>	<p>[골프회장] 이문구 (20기) [사무국장] 이진수 (30기)</p>	<p>[자연문화동호회장] 조익수 (14기) [사무국장] 유태식 (28기)</p>

이사(기별회장 / 사무국장)

1기('95) 김원길	9기('02) 남승우 안중우	17기('06) 임기주	25기('10) 김종일 서주환
2기('96) 김희병	10기('02) 권영태 홍지선	18기('06) 차광찬 오찬재	26기('10) 은종환 최정주
3기('97) 박만길 장현수	11기('03) 김홍수 이영재	19기('07) 이경민 이재혁	27기('11) 왕효석 이민호
4기('98) 정운경 오성진	12기('03) 홍순연 성낙훈	20기('07) 이문구 박래훈	28기('11) 박봉규 백승기
5기('99) 박종인 서장열	13기('04) 정해길 이창식	21기('08) 이규석 권한준	29기('12) 이상헌 백승진
6기('00) 이점수	14기('04) 이용란 김헌수	22기('08) 최광주 최송휴	30기('13) 강완수 전태효
7기('01) 이재희	15기('05) 정휴병	23기('09) 김종률 조문기	
8기('01) 윤세한	16기('05) 김성우 최정윤	24기('09) 이미혜 이승준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사무국 개소

SGS 총동창회(회장 문국현)는 발전계획에 따른 조직정비 및 사무국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대학원(원장 최막중)의 협조를 받아 한시적으로 도시·환경최고위과정 행정실에 총동창회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다.

(전화 02-880-8525, 팩스 02-882-5831, 메일 sgs@snu.ac.kr)

SGS 총동창회 골프모임 월례회 안내



SGS 총동창회 골프모임에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월례회를 갖고 있다. 3월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정회원을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환경대학원 동문이면 누구나 준회원의 자격으로, 월례회 2주 전에 일정 및 팀구성을 확정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문의 골프모임 회장 이문구(20기)/주식회사 다짐 대표이사 : 010-5223-0867
사무국장 이진수(30기)/(주)라움 대표이사 : 010-3843-6828

SGS 총동창회 2014년 하계 해외답사

SGS 총동창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기간에 세계 도시·환경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 29일 ~ 8월 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와 주변 소도시 문화기행'을 진행한다.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환경계획학과 동문동정

- ❖ **안동만**(조경 1회)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2014년 서울시 공원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월례 공원위원회 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 ❖ **김일세**(계획 9회) 동문은 현재 (주)평화엔지니어링 해외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 ❖ **신순호**(계획 9회) 동문은 2013년 7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았고, 12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장으로 위촉 받았다.
- ❖ **황인수**(계획 9회) 동문은 건축사사무소휴먼스페이스를 2009년 휴업하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원조사업단장과 (주)부영/건설본부 상무이사를 거쳐 현재, 서울 성북구에서 건축사사무소넥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 ❖ **강현수**(계획 19회, 계획박사 7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2013년 8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기정훈**(계획 26회)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14년 5월 21일~2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 건축 및 단지 설계지침 개발연구'(국토진흥원 지원)를 전시하였다.
- ❖ **고문현**(계획 27회) 송실대학교 교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CO2저장 저장 환경관리 법제도 기반 연구' 프로젝트(2014. 4. 1.~2018. 3. 31., 4년간 12억 원)의 담당자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가 선정되어(2014. 7. 1.~2019. 6. 30., 5년간 12억 5천만 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를 진행하는 송실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 ❖ **권범근**(계획 28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선임급 연구원의 논문 'Regional distribution of styrene analogues generated from polystyrene degradation along the coastlines of the North-East Pacific Ocean and Hawaii'이 2014년 5월 19일에 학술지 *Environmental Pollution*(SCI)에서 5월의 Editors' Choice로 선정되었다.
 - 📎 다운로드: <http://www.journals.elsevier.com/environmental-pollution>
- ❖ **이태동**(계획 34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Network Analysis of Free Trade Agreements: Homophily and Transitivit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13. 11 (2): 263-293 와 "Policy by Doing: Formulation and Adoption of Policy through Government Leadership." *Policy Studies Journal*. 2014. 42 (1): 30-54 논문을 출간하였다.
- ❖ **김미형**(계획박사 21회) 동문은 2014년 4월 논문 'Comparative Studies of Urban Climate Co-benefits in Asian Cities: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CO2 emission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을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69(15) April 2014, Pages 199-207 에 게재하였다.
 - 📎 다운로드: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14000523>

- * **유항란**(계획박사 22회) 동문은 2014년 1월~2월에 뉴질랜드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 방문학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월에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한중국대사관 공동주최 신임 주한중국대사 취임 축하에 VIP로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3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4월에는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법제의 동향과 과제' 국제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초대되어 'Problems and prospect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in China'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5월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기후변화적응관련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또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2014한-중 국제 중재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초대되어 중국의 골프장 분쟁사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한중법학회 이사 및 본 학회 등반회장으로서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한중법학회 상반기 초청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 **이유진**(계획박사 24회)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2014년 6월 4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녹색당 서울광역비례후보로 출마했으나 0.55% 지지로 낙선하였다.

환경조경학과 동문동정

- *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7회) 동문은 2014년 3월 28일 제17회 토목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토목인의 지위향상 및 토목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토목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올해 봄 학기부터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외래강사로, 교량의 미학과 교량의 문화경관 내용을 다룬 '교량의 미적 이해(학부)'와 '교량역학특론-교량의 미적 이해(대학원)' 과목을 강의 중에 있다.
- * **윤현택**(조경 39회) 동문은 2012년부터 'NooYoon'(Work Architecture Company)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ENYA Biennial Idea Competition (AIA New York)에서 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였습니다. Open to the Public Symposium (AIA New York)에 게스트스피커로 초청되어 2014년 6월 14일 Speech 및 토론을 하였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박원순(도시환경최고위과정 9기) 서울특별시장
 제종길(도시환경최고위과정 13기) 경기도 안산시장
 남유진(도시환경최고위과정 15기) 경상북도 구미시장
 염태영(도시환경최고위과정 17기) 경기도 수원시장
 이해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3기) 서울시 강동구청장
 최창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3기) 서울시 중구청장
 유영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9기) 경기도 김포시장

❖ **김광두**(도시환경최고위과정 3기) (주)원화조경 고문이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외래교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어 2014년 5월 15일부로 금강유역환경청 수변생태계 복원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문국현**(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장, 7기) 회장이 대표로 있는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는 4월 29일자로 삼성동에서 판교테크노벨리로 확장 이전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아이코닉스빌딩 3층, 연락처: 02-563-0005, 팩스: 02-562-0002)

❖ **심영철**(도시환경최고위과정 14기)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6월 14일~8월 22일까지 '춤추는 정원' 초대전 소식을 전해왔다. 또한 전시 주제에 맞추어 참가자가 보내주는 식물 화분들로(과실 화분 등) 함께 '정원'을 완성해가는 작품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리본에 성함을 적은 후 화분에 달아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으로 보내주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 **김기숙**(도시환경최고위과정 15기) 동문이 총재로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은 2014년 6월 7일 데일리대한민국 3주년기념 통일희망 콘서트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청소년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 데일리대한민국, (사)자연사랑 공동주최, 안전행정부와 통일부가 후원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들과 온 사회가 깊은 상처를 입고 좌절에 빠진 모습이 안타까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희망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총연합'에서 '당나귀 Open Talk 콘서트' 행사를 매달 개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당나귀 오픈 토크가 세대간, 계층 간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행사소식을 전해왔다. (문의: 02-793-5114)



❖ **최정윤**(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유디아이도시디자인 대표는 5월 28일 경기도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제1회 디자인-기술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태양광 LED 보안등 '선플라워' 등 디자인 주도형 프로세스로 탄생한 'LED조명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LED조명 및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 6월 24일~27일까지 일산컨텍스에서 개최되는 "LED & OLED EXPO 2014"에 UDI LIGHTING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 **차광찬**(도시환경최고위과정 18기) 동문이 운영하는 ㈜건우씨엔씨는 최근 회사명을 ㈜건우기술로 변경하였다. 수행하는 업무는 구조설계, 구조진단, 보강공사, 오메가빔합성보, 리모델링, 하자송무지원 업무로 변동사항이 없다.

- ❖ **최송휴**(도시환경최고위과정 사무총장, 22기) 동문의 CJ대한통운 환경사업소가 최근 구로로 이전하였다.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911호, 전화: 02-2632-8611, 02-310-2760)
- ❖ **유종국**(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솔로몬산업(주) 대표이사는 2014년 3월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부회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에 각각 임명되었다.
- ❖ **김종일**(도시환경최고위과정 25기) 기 회장이 대표이사인 에프에이테크 주식회사는 2014년 6월 5일 2,000여개의 회사가 참여한 "2014년 환경부주최 창조경제 아이디어 공모전"(10개 업체 선정)에서 '고기 텃밭'(수족관 겸용 수경재배장치)으로 10개 업체 안에 선정되었다.



- ❖ **송재용**(도시환경최고위과정 27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2014년 3월 중앙일보가 주최한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상생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 ❖ **백승기**(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동문이 대표로 조은혜(도시환경최고위과정 29기) 동문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승보이앤씨건축사 사무소가 최근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5-14 4층, 전화: 070-4870-0700 팩스: 070-8260-0770)
-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자치회(회장 조영규, 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는 2014년 5월 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회장: 박봉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사무국장: 백승기 승보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 골프모임 회장: 정광희 우림웍스 대표이사, 골프모임 총무: 남정현 천산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자치회를 이끌게 되었다.

2014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1기 모집안내

환경대학원의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은 정부, 민간, 시민단체의 중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환경 분야의 지식, 정보, 기술 및 아이디어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도 보다 다차원적이고 범지구적인 문제상황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은 학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학습과 상호계몽 포럼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추천을 적극 존중하는 특별전형이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변의 적임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 선배팰로우, 교수 추천을 통한 1차 특별전형 8월 20일(수) 18:00까지
 - 신문광고(조선일보) 8월 25일(월)
 - 일반원서마감 9월 19일(금) 18:00까지
 - 합격자발표 9월 29일(월)
 - 출범식 10월 17(금) 예정 (7개월 과정)
 - 지원자격 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자 및 임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 인사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 건축 및 조경설계 사무소 대표자 또는 임원
- 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환경 엔지니어링 대표자 또는 임원
- 건설회사 또는 개발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부동산 금융 및 투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추천 및 자세한 문의 사 무 장 김 배
전 화 02-880-8525
이 메 일 sgs@snu.ac.kr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 행정실 212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2013년 하반기부터 뉴스레터와 e-환경논총의 발간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뉴스레터 | 매년 6월 말, 12월 말 • e-환경논총 | 매년 9월 말, 3월 말